[World Now] 크리스티앙 볼탕스키U

ABROAD

2018 / 06 / 03

한지희

인류를 기록하는 거대한 기억장치
<Christian Boltanski: Storage Memory> 4. 25~7. 8
파워스테이션오브아트(http://powerstationofart.com/en/)



<아니미타스> 칠레 산페드로데아타카마 촬영본 단채널 비디오 13시간 16초 2014_전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사막에 800개의 작은 일제 종을 긴 막대에 매달아 수풀처럼 꽂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작품. 바람이 불면 종이 울리며 '영혼의 음악'을 연주한다. 피노체트 정권의 억압에 시달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순례지로 마련됐다.

프랑스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지난 30여년을 조망하는 첫 중국 개인전. 그는 설치 영상 사진 사운드 그림자극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이 갖는 휘발성, 여기서 연상되는 유한성이나 죽음과 부재, 영혼 등의 주제를 고집스럽게 탐구했다. 볼탕스키는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개인의 기억은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지만, 여전히 진실하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그는 작품에 일상의 사건과 사물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명암대비를 극대화하거나 사운드를 혼합함으로써 관객의 시청각을 자극하며, 나아가 우리가 일상과 역사적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 전시제목 <기억장치>는 작품을 통해 개인의 경험,

이것이 모여 형성한 집단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옷 10톤을 쌓아올린 <페르손>, 관객의 심박수를 기록하는 <심장소리 아카이브>, 수백 명의 어린이와 노인 초상을 전시한 <기회-운명의 바퀴>를 포함한 대표작, 이번 전시를 위해 파워스테이션오브아트가 특별히 의뢰한 장소특정적 설치작업을 포함해 총 35점을 선보인다. 전시기획은 작가와 50년 가까이 교류한 큐레이터 장-위베르 마르탱이 맡았다.



<페르손> 2010_파워스테이션오브아트 <기억장치>전 전경. 2010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모뉴멘타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10톤의 옷을 쌓았다. 관객이 옷으로 대유된 익명의 개인을 떠올리며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을 사유하도록 이끈다.



<페르손>(부분) 2010_파워스테이션오브아트 <기억장치>전 전경 2018



* Power Station of Art
200 Huayuangang Road, Huangpu District, Shanghai
화~일 11:00~19:00 (마지막 입장 18:00), 공휴일 개관